

#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 사례로 알아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배 윤 정 연구원

- ▶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아웃소싱을 받는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불합리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해야 하는 사회적·윤리적 책임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 지난 4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의 의류공장인 'Rana Plaza'가 붕괴되어 노동자 천백여명이 사망하고 이천오백명 가량이 부상당하는 사상 초유의 참사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사고를 통해 저임금, 저비용으로 승부하고자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방글라데시 봉제의류산업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남
-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해외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제고 활동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 해외업체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보상 및 근로환경 안전점검 등을 규정한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노동환경

-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아웃소싱을 받는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불합리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해야 하는 사회적·윤리적 책임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글로벌화, 기업 간 경쟁의 심화 속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으며 글로벌기업들은 개별국가의 감독당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함
    - 개발도상국가들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 정부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음
    - Nike의 아동노동, Foxconn공장의 노동착취 등은 대표적인 인권침해행위이며 모두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과 연계되어 있음
- 최근 글로벌 의류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의류공장 'Rana Plaza'가 붕괴되어 노동자 천백여명이 사망하고 이천오백명 가량이 부상당하는 사상 초유의 참사가 발생하였음
  -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준 이하의 자재를 사용한 부실시공<sup>10)</sup>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건 발생 하루 전날 7층 내벽의 균열이 발견되어 붕괴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할 정도로 근로

자들의 안전에 무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되어 온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230여개의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 5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에도 Dhaka 인근의 공장에서 불이 나 백십여명이 사망하였음

### 방글라데시 진출 서구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이번 사고를 통해 방글라데시 봉제의류산업을 이용하는 서구 국가들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봉제의류산업의 신흥 강국으로서, 높아진 중국의 인건비를 대체할 인력시장을 찾던 서구의 의류업체들이 대거 진출함
    - 방글라데시의 시간당 임금은 24센트로서 중국(1달러26센트), 캄보디아(45센트), 파키스탄(52센트) 등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sup>12)</sup>
    - 방글라데시의 봉제의류산업은 수출의 77%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Fast Fashion'<sup>13)</sup>의 선두주자인 H&M, ZARA, 등을 비롯한 유럽 브랜드와 GAP, Benetton등의 미국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음
  -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해외업체들의 불안정한 구매 관행, 현지의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의존하는 관행 등은 이번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음
    - NGO단체인 'Clean Cloth Campaign(이하 CCC)'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업체들의 단발성 구매 관행, 불안정한 파트너십, 대금 삭감 등을 경험한 현지 생산업체들은 불법 건물증축, 밤낮 없는 연장근로 등 무리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해외 업체들은 생산업체 관리시, 노동 기본권 및 보건·안전에 관한 검사를 배제한 감사 시스템에 의존하였음
- 한편, 방글라데시의 노동법, 건물안전 협약 등은 부실시공 건물의 안전을 관리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감독인력의 부족으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 발간된 방글라데시 산업보건안전협약(OSHE)에 따르면, 안전 감독인력이 전국적으로 80명에 불과하며 4개의 대도시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11) 무너진 '라나플라자'는 9층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로서, 비용절감을 위해 시멘트 보다는 모래가 많이 쓰였으며 시멘트 건물에 꼭 필요한 강화 철근 역시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2)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30514.22015194604>

13) 'Fast Food'처럼 빠른 회전을 주요 경쟁력으로 삼는 의류업계의 트렌드를 이룸

-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러한 기준 미달의 감독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지만 미미한 수준의 개선만 이루어 질 뿐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해외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제고 활동은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은 OEM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현지 인력의 직접적인 고용주는 아니지만 현지 인력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깊은 관련이 있음
  - 전 세계 185개국인 ILO회원국이고, UN 등은 ILO 협약<sup>14)</sup>의 준수 여부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협약 비준국 소속 글로벌 기업의 생산 공정은 그 소재가 어디이든 기본적인 노동 규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 글로벌 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일례로 전자산업 행동규범(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 EICC)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자산업계의 글로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정한 행동규범으로 본 행동규범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1차 협력사들에게 EICC 준수를 요구하도록 함
  - EICC에서는 노동, 보건안전, 환경보호, 공급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동참하고 있음
- 국제 노동자단체인 'IndustriAll'은 '안전협약(Accord on Factory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을 제정하여 원청업체인 서구 의류업체들의 책임 및 개선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일본의 대응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Rana Plaza 붕괴 사고 이후 서구 기업의 대응

- 앞서 언급한 'Fast Fashion'의 선두주자인 Zara를 보유한 스페인 의류기업 Inditex와 스웨덴 의류업체 H&M, 프랑스 Carrefour, 영국 Tesco 등 30곳 가량의 유럽계 기업 다수는 협약 가입을 결정함
- 안전협약은 5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해외업체들 스스로 하청업체인 의류 공장들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안전협약은 크게 지배구조, 감독체계, 개선방안, 교육, 고충처리, 보고, 공급자 인센티브, 재정적 지원 등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전협약에 가입한 기업들은 노사 동수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ILO의 선택을 받은 자를 중립적인 의장으로 선임해야 함
  - 회원사는 독자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공장을 검사해 결과를 공개해야하며, 필수 안전시설이 없는 곳과는 거래하지 않음

14) ILO는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동자·노조가 공장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의 발언을 제한하는 공장에 대해 거래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일본 기업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보상 및 근로환경 안전점검 등을 규정한 협약이 일방적이고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일본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지속되어야 하는 규약상의 의무에 대해 부담감을 표하면서 안전 협약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음

- 미국 기업 가운데는 Tommy Hilfiger와 CalvinKlein의 모회사인 Phillips-Van Heusen, Abercrombie & Fitch 등 두 곳만이 가입한 상태임

- GAP의 일부 주주들은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협약에 서명에 반대하였으며 CEO인 Glen Murphy는 이를 들어 협약 가입에 난색을 표함

○ 특히 미국기업들의 경우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으며, 협약상의 구체적인 배상액, 배상 범위가 모호함을 주장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집단소송이 허용되어 배상액의 크기가 훨씬 커질 수 있어서 유럽보다 큰 법적 리스크를 지녔다고 하면서<sup>15)</sup> 기업에 고용된 전 세계 근로자들이 모두에게 배상해야 할 염려가 있다고 발표함

- 또 협약상의 문구가 모호하여 방글라데시에 소재한 5000여개의 공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공장 한 곳당 \$500,000)의 부담액 역시 불분명하다고 주장함

○ 또한 일부 해외업체들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철수하고 있음

- Karel De Gucht 유럽연합(EU) 통상담당과 Wendy R. Sherman 국무부 정무차관은 외국 원청 업체, 특히 유럽 업체가 방글라데시를 떠나지 말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의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EU 및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함

15) [http://www.nytimes.com/2013/05/23/business/legal-experts-debate-us-retailers-risks-of-signing-bangladesh-accord.html?hp&pagewanted=all&\\_r=1&](http://www.nytimes.com/2013/05/23/business/legal-experts-debate-us-retailers-risks-of-signing-bangladesh-accord.html?hp&pagewanted=all&_r=1&)